"미국을 계속 위대하게"…트럼프 재선 출정식

최대 접전지 플로리다서
16개월 대선레이스 개막
미국 우선주의 전면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재선 출정식장인 플로리다주(州)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 출사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플로리다주(州)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출정식을 갖고 "우리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키려고 한다"며 재선 슬로건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를 내걸고 재선 고지 등정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역대 대선에서 초박빙의 승부수가 펼쳐지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플로리다에서 첫 깃발을 꽂고 재선 가도의 닻을 올린 것이다.

이로써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을 2020년 11월 3일 대선을 향한 16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민주당도 오는 26~27일 이틀에 걸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20명의 후보가 2개 조로 나뉘어 첫 TV토론을 갖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플로리다 쟁탈전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전선의 사활을 건 일전이 예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만여명의 지지자들로 행사장이 꽉 들어찬 가운데 초대형 정치집회 형식으로 열린 출정식에서 "우리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위대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오늘 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재선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첫 대선 도전 당시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걸었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는 자신의 1기 성과를 자평하며 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정식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는 전 세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금 번창하고 있으며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우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걸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집권 2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관통한 어젠다인 '미국 우선주의'도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웠으며 "우리는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나라를 분열시키며 파괴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다"고 원색적 공격을 퍼붓는가 하면 비우호적 주류 언론들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출정식에는 장녀 이방카 부부 등 자녀들도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 사과 회견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18일 홍콩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캐리 람 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지난 16일 서면 성명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사과했다. /연합뉴스

30대 한국인 인도서 패러글라이딩 도중 실종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州)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 나섰던 한국인 남성이 며칠째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도 NDTV 등 현지 매체와 주인도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30대 한국인 이모씨는 지난 14일 히마찰프라데시주 캉그라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겠다며 호텔을 나선 뒤 연락이 끊어졌다.

이후 다음 날까지 이씨가 호텔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다르만 마을의 한 나무 위에서 이 씨의 장비가 발견됐다.

이에 이씨가 묵었던 호텔 직원 등이 실종 신고를 했고, 현지 경찰은 이 씨의 행적을 찾고 있다. 현재 경찰 등 40여명의 구조팀이 수색에 나선 상태다. 캉그라 당국 관계자는 "경찰과 지역 구조 당국이 철저하게 수색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인도한국대사관도 실종 신고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현지에 사건 담당 영사를 파견해 인도 당국과 함께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담배 생산·판매 전면금지
美 샌프란시스코시 조례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AP통신과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이날 미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전자담배 생산도 금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내주 2차 투표를 거쳐 조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중 특히 생산금지 조치는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쥴'(Juul)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이번 전자담배 판매 및 생산금지 조례에 대해 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쥴 대변인은 "모든 성인에게까지 전자담배 제품을 금하는 조치는 미성년자 흡연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바가 아니며,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4만명을 사망케 하는 일반 담배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일본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에 있는 주택 지붕들이 강진으로 기와가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됐다. /연합뉴스

日 니가타·야마가타 규모 6.8 강진…15명 부상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일본 야마가타(山形)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모두 1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소방청은 19일 이번 지진으로 니가타(新潟), 야마가타 등 4개현에서 15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흔들림이 진도 6강(强) 수준으로 가장 강한 진동이 관측됐던 니가타현 무라카미(村上)시에서 70대 남자가 깨진 유리에 왼발을 심하게 다쳤고, 진도 5약이 관측된 가시와자키(柏崎)시에서는 60대 여성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진앙을 기준으로 한 지진의 절대 강도인 규모와 달리, 각 지역에서 감지하는 상대적 진동의 세기인 진도 6강은 일본 기상청이 분류하는 10단계 지진 등급 중 9번째에 속하는 강진이다.

서 있기가 불가능하고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이동하거나 넘어지는 수준이다.

또 진도 6약(弱)을 기록한 쓰루오카(鶴岡)시에서 68세 여성이 피난 장소로 가는 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등 야마가타현에서 9명의 부상자가 나왔지만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임 美국방장관 대행에 에스퍼 육군장관

폼페이오와 육사 동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오래 전 가정폭력이 보도되면서 자진사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을 새 국방장관 대행에 앉히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국방부의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훌륭하게 일해온 섀너핸 대행이 인준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에게 더 시간을 쏟기로 했다"면서 "그의 뛰어난 봉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스퍼 육군장관을 새 국방장관 대행에 지명할 것"이라며 "나는 마크를 안다. 그가 환상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섀너핸 대행은 성명을 내고 "세 자녀가 가족의 삶에서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시기를 겪지 않도록 (사퇴) 결정을 내렸다"면서 "고통스럽고 매우 개인적인 오래 전의 가족 상황이 들춰져 유감스럽다"고 사퇴를 확인했다.

앞서 USA투데이는 섀너핸 대행과 전처 킴벌리 조딘슨이 2010년 8월 28일 술을 마신 채 언쟁을 벌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수사국(FBI)이 섀너핸 대행의 장관 인준에 앞서 이를 조사해왔으며 섀너핸 대행이 2017년 7월 부장관이 될 때나 올해 1월 장관 대행이 될 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섀너핸 대행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충돌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평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새 국방장관 대행이 될 에스퍼는 2017년 11월 육군성 장관이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기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